

더불어사는 광주
행복한 시(市)

빛고을 **광주**



제 690 호
2015년
11월 15일(일)~30일(월)

광주광역시 소식지 「빛고을 광주」는 매달 첫째주와 셋째주 두 차례 발행됩니다.
구독신청을 하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062) 613-2171~2

광주시 예산 '4조원 시대'

청년일자리 · 마을공동체 · 푸른도시 등 광주 미래에 집중 투자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4조 602억 원으로 편성, 지난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117억원(5.5%) 증가한 것이며, 처음으로 예산 4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5억 원(0.8%)이 증가한 3조 1,27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871억원(24.8)이 늘어난 9,324억 원이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은 지방세가 주력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838(7.1%)억 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상생발전기금 일부가 융자계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7억 원(5.0%)이 감소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큰 변화 요인이 없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에 하계(대회 개최를 위해 894억원을 발행했던 지방채(지역개발기금 채권 제외)는 내년에는 전혀 발행하지 않아 채무비율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면으로 이어짐

광주광역시청 기획홍보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1월 25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광주

나의 아내인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 신은정 감독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저는 편도 티켓으로 세계를 두 번 여행했다. 많은 아름다운 장소를 경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광주는 제 마음 속에 특별히 남아 있다. 장모님과 저는 여전히 각별하고, 절친한 친구들이 그림자만 제가 사랑하는 광주에는 아주 특별한 다른 무언가가 있다. 저는 광주에서는 언제나 편안함을 느낀다.

이상적인 광주에 관한 저의 꿈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몇 가지 생각이 즉각 떠올랐다. 공공 지역에 심어져서 누구나 맛있고 신선한 식량을 수확할 수 있는 만 그루의 과일나무와 견과류 나무, 물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마실 수 있는 강물, 생태학적인 도시 기획자가 방류했다고 하더라도 토종 물고기만 풍부한 강물. 새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것들을 먹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무등산이 가진 자연의 아름다움은 주의 깊게 보존되어야 할 뿐 아니라 확대되어야 한다. 본래의 생물권에 있는 동·식물상을 복원해서 더 널리 퍼지게 해야 한다. 인권과 함께 공존하는 사슴종과 기타 포유류종을 자연 지역에 방생할 수도 있다. 저를 위해 광주를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도심으로 가져와야 한다.

동구 금남로와 서구 상무지구의 시내 지역은 차가 없는 곳이 되어야 한다. (서울의 청계천과 유사하게) 복원된 흐르는 물 주변의 풀이 덮인 지역은 다함께 휴식을 취하는 도시의 쾌적한 야외활동 지역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공기 필터와 정화 장치를 실내·외에 모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풍차와 태양열 집열기를 도시 전역에 설치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 가장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고, 화석 연료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야 한다.

광주의 대중교통은 이미 제가 방문한 세계의 많은 도시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여전히 개선될 수 있다. 지하철 노선은 적어도 철도역, 버스 터미널,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이용이 끝나면 공공 자전거 보관소에 두고 가는 공공 자전거 수천대를 구입할 수도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부 계획이 필요한 만큼 대기업이 도시에서 자율 운영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정부 계획은 약화될 것이다. 공공 장소의 기업 식민지화는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를 몰아내는 거대 시장과 건물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미 가족이 운영하는 시장을 대체한 신타를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체인이 많이 있다. 가족만 경제 기반

을 잃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중요한 소통과 거래의 중심지를 잃고 있고, 대기업이 성장할수록 시민 사회가 약화된다.

광주시는 기존 인권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창출하도록 시민사회를 도와야 한다. 그렇게 요구되는 점포의 하나는 5·18과 전세계의 다른 투쟁들에 대한 책, 비디오, 엽서, 포스터를 갖춘 다문화 서점이다. 전세계의 인권 활동이 고향이라고 부를 광주에 많은 언어로 된 출판물을 두어야 한다. 패스트 푸드점이 계속 생겨나는 만큼(유스퀘어는 패스트 푸드점 천지이다) 광주의 전통 요리와 요리의 우수성을 조장해야 한다.

공중과 텔레비전과 함께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은 아동, 노인, 이민자, 게이 및 레즈비언, 여성, 모든 소수집단에 대한 관점과 프로그램 편성을 포함하도록 확대될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데 필요한 기술뿐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표현하고 논의하는 기술들을 가르칠 것이다. 프로그램 편성은 흔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대해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광주는 예술의 도시로 유명하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예술 행사인 광주 비엔날레는 마찬가지로 풀뿌리식 참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새로운 상인 광주 정신상을 제정해야 하며, 시민들은 광주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낸 예술 작품을 무엇인지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다. 이 절차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과거 시민군의 구성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광주 정신상을 조직하고 수상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들을 동원할 수 있다. 5·18기념재단, 구속부상자 단체, 5월 어머니집 등 투쟁에서 생긴 다른 단체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트라우마 피해자의 예술이 투쟁만을 다루는 비엔날레 특별 구역에서 전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상적인 광주는 비군사화되는 것이다. 광주는 한반도 비무장을 선도하는 단계로서 자체적으로 비핵시대와 비대량살상무기시대를 선언해야 한다. 그 대안은 상상할 수 없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이상적인 광주를 만드는 우리의 선택은 오늘 시작되어야 한다!

※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의 민주운동 연구에 천착해 온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조지 키치아피카스 교수는 한때 전남 대 객원교수로 재직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5·18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오월 어머니상'을 받았고, 지난 5월 광주시민의 날에는 광주 명예시민증을 받을 정도로 광주와 인연이 깊어 최근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여망을 특별기고문으로 보내와 게재하게 됐다.



조지 키치아피카스

조지 키치아피카스는 미국의 좌파 정치학자이다. 대학 시절 68혁명을 경험하며 운동에 참여했고, 당시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조직해 FBI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했다. 오랫동안 평화와 정의를 위해 투쟁해 온 활동가이자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국제 코디네이터이다. 미국 보스턴의 웨트워스 공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신좌파의 상상력: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본 1968년』, 『정치의 전복』 등이 있다. 또한 10년 동안의 방대한 연구와 취재를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봉기』와 『아시아의 민주봉기』를 저술해 최근에 출간했다.



이홍산 수처 여사가 지난 2013년 1월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 분향하고 있는 모습. 수처 여사는 5·18기념재단으로부터 지난 2004년 제 5회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나 연금상태로 상을 수여받지 못하다 9년만에 광주를 방문해 인권상을 전달 받았다. (연합 자료사진)

성명서

-미안마 민중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며

미안마 총선에서 이홍산 수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먼저 수처 여사의 지도력과 미안마 국민의 위대한 선택에 경의를 표합니다.

미안마 야당의 승리는 53년 군부독재를 끝내려는 국민의 강렬한 의지와 열망의 표현입니다.

이번 총선은 미안마 국민의 열망대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암의 시대를 해쳐 온 이홍산 수처 여사는 시대를 앞선 해안과 통찰력, 철저한 비폭력 저항으로 군부독재에 맞서며 미안마 민주화를 위해 한 평생을 살아 왔습니다.

우리 광주와의 인연도 깊습니다. 지난 2004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됐고, 2013년에는 직접 광주를 방문해 명예시민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민주화의 여정에서 희생된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묘지를 직접 참배하고 "광주의 젊은이들이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것에 대해 큰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수처 여사의 삶 또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와 닮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미안마 총선 승리가 자랑스럽고, 선거에 나타난 미안마 국민들의 뜻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제 15만 광주시민과 함께 미안마가 민주정부로 나아가는 과정을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국민 인권 신장, 경제발전의 과정에도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광주는 미안마 민중들의 위대한 승리를 다시 한 번 축하하며, 미안마와 연대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민주화를 이루는 데 더욱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11월 10일
광주 광역 시장